



영혼 구원과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가정교회

- * 예배 초청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환영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다함께
- * 경배와 찬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함께
대표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윤완선 목사
광고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인도자
설교 성탄을 기뻐할 이유 (요 3: 16) 이진수 목사
결단찬양 “참 반가운 성도여” 다함께
축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이진수 목사
- * 표는 일어서서 몸이 불편하신 분은 일어서지 않고 앉으셔도 됩니다



헤이워드 침례교회

24742 La Playa Place Hayward, CA 94545 Tel: 510-732-9191

Fax: 510-732-1212

교회 홈페이지: new.hkb.church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역대상 22:1-10)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결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고 하십니다. 다윗이 뜨거운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신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기분 나빴했을 것입니다. “그럼 고만두자” 라는 마음을 먹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기 원했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따지거나 “기분 나쁘다고 안 하겠다” 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내가 하느냐 하지 않느냐 보다도 누가 하든 하나님의 일이 되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내 이름, 내 영광, 내가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 주지 않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당할 때 분노하기도 하고, 서운해 하기도 하고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의 일을 할 때도 내 의견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야만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열 받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교회가 망할 것처럼 말하고,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견이 가장 옳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인 것 처럼 말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뜻인 것 처럼 행동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런 마음, 그런 말,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직분을 받든지 받지 않든지, 내 이름이 앞에 있든 뒤에 있든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잘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도들이 힘을 얻고 잘되면 된다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때에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죽을 때까지 어린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미리, 뒤에서, 소리 없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준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과 같이 뒤에서, 보이지 않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돕고 배려하는 마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중보 기도** -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 **성탄 주일** - 이번 주일예배는 성탄 주일예배로 드립니다.
3. **실시간 새벽예배** - 주중 새벽 예배 (화-토 6 AM)를 실시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송구영신 예배** - 송구영신 예배는 12 월 31 일에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12/20	12/27	1/03	1/10
대표기도	윤완선	유경주	고현명	조현숙
헌화성도	한동윤/여진화	심영민		
봉사당번				

예배출석자 및 헌금

예배 출석자	주일예배	
	주일학교	
	수요 기도회	
	토요 새벽예배	
지난주 헌금통계	\$ 1,025.40	

행사 및 모임

12 월	성탄축하예배	12 월 20 일 (주일)
	정기성도총회	날짜 미정
	송구영신예배	12 월 31 일 (목)
1 월	신년감사예배	1 월 3 일 (주일)

목장현황

목장이름	모임 날짜	모임 장소	인원	다음 장소
소망목장	1 월 22 일	이진수	17	교 회
믿음목장	2 월 23 일	교 회	7	교 회
나눔목장	2 월 23 일	유영민	6	심영민
섬김목장	3 월 05 일	이진수	8	이진수
은혜목장	2 월 09 일	정명희	7	윤완선
신바람목장	1 월 11 일	이진수	6	손다니엘
둥지목장	2 월 02 일	이인호	5	오상균
따스한목장	1 월 11 일	김인수	7	서영희
샬롬목장	2 월 21 일	조정옥	7	김창용

*목장모임은 각가정에서 돌아가며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원선교지 안내

목장	목자/목녀	연락처	선교사
소망목장	정병철	510, 415-4156	선교사 (Malaysia)
믿음목장	박종철/박승자	510. 909-8612	유성남 (중국)
나눔목장	유영민/유경애	510. 318-0747	정주환(소망공동체)
섬김목장	이진수/이은진	510. 415-0671	장철호 (미얀마)
은혜목장	윤완선/윤선예	510. 340-1014	조영문 (Vietnam)
신바람목장	유경주	010 6427-2431	박완주/헝가리집시
둥지목장	이화선/이인호	510. 915-5578	K 선교사(Malaysia)
따스한목장	김영란/김인수	510. 468-4720	김정림 (탄자니아)
샬롬목장	조현숙/조정옥	510. 396-6952	조항권 (우간다)

성경공부

새가족 성경공부	4 주
생명의 삶	13 주
확신의 삶	7 주
새로운 삶	13 주
경건의 삶	13 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3 주
말씀의 삶	13 주
TEE 성경공부-12 주	12 주

크리스마스를 맞으며

오랜만에 통화를 하거나 만나는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저희집 아들들이 올해 고등학생이 되었다는 말을 하면 벌써 그렇게 컸느냐고 놀라십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올해 두 아들 녀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매일 저녁에 레스링, 풋볼, 그 외에 활동을 하지 못해 집에서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 녀석들이 크는 것이 그냥 크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얼마나 많은 뒷바라지와 사랑의 수고가 큰지를 가까이에서 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50 에 조금 철이 드는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이제야 조금 피부로 깨달아잡니다. 자녀를 키워가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더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철없는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땡깡을 피우고, 말을 듣지 않고, 잘못을 반복하는 모습에도 비록 화는 나지만 다시 긍휼함으로 끝까지 사랑으로 받아 주는 그 사랑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랑이 가슴으로 다가옵니다.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느껴집니다.

찬송가 404 장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라는 가사가 새록새록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그리고 축복들을 생각해 볼 때 더 이상 하나님께 요구할 것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한다는 것이 웬지 모르게 짐이 되고 무겁게 느껴졌지만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고 순종한다는 것이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내 인생을 목자와 같이 책임져 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생과 내생에까지 책임져 주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다는 것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시는 일이 바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는 일임을 확신합니다.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주님으로 오신 크리스마스의 기쁜 복음의 소식을 이제는 우리가 듣고 우리의 것만으로 삼는 것이 아닌 그 복음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함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삶이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예배및모임안내

주일대예배	오전 10 시 30 분	본당
어린이예배	오전 10 시 30 분	유치부실
영어예배	오전 10 시 30 분	영어부예배실
주일성경공부	주일오후 1 시	유년부실
수요기도회	수요일오후 7 시 30 분	본당
새벽기도회	매일화-토오전 6 시	본당
목장모임	매 주	목장별각가정

섬기는분들

담임목사: 이진수	510-415-0671	timjdsn@gmail.com
Youth: Paul & Lena	510-872-2212	Paul.lee@gpmail.org
어린이교회: 이은진	510-415-1696	ejoysong@gmail.com
안수집사: 고현명, 윤완선		
섬김목장:이진수목사	소망목장: 정병철교사	믿음목장: 박종철목자
나눔목장:유영민목자	따스한목장:김영란목자	은혜목장: 윤완선목자
둥지목장:이화선목자	살롬목장: 조현숙목자	신바람목장: 유경주목자

교회약도

